

고혈압성 심장병에서 좌심실비대가 심실성 부정맥발생에 미치는 영향

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배우형^{*}, 박용인, 박용현, 홍택중, 신영우

목적 : 좌심실비대는 고혈압환자에서 급사(sudden death)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며 이는 심실성 부정맥의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이에 저자들은 고혈압환자에서 심실성 부정맥의 발생에 대한 좌심실비대의 역할을 평가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.

방법 : 고혈압 환자들 중 심전도상 좌심실비대 음성군 50명(남자 17명, 여자 33명, 평균연령 57.9±12.3세)과 좌심실비대 양성군 50명(남자 13명, 여자 37명, 평균연령 61.5±9.96세)을 대상으로 24시간 활동심전도를, 초기 혈압, 혈청 크레아티닌과 사구체 여과율 측정 및 안저검사를 시행하였다.

결과 : 좌심실비대 음성군과 좌심실비대 양성군에서 심실성 부정맥이 각각 15명(30%), 25명(50%)에서 발생하였고(각각 심실 기외수축 15명 : 25명, couplet 2명 : 4명, 심실빈맥 1명 : 3명), 혈청 크레아티닌치는 각각 $0.90 \pm 0.25 \text{mg/dl}$, $0.97 \pm 0.56 \text{mg/dl}$, 사구체 여과율은 각각 $73.47 \pm 23.32 \text{ml/min/1.73m}^2$, $66.64 \pm 20.15 \text{ml/min/1.73m}^2$, 초기 혈압(수축기 압력 : 이완기 압력)은 각각 $157 \pm 14 \text{mmHg}$: $97 \pm 11 \text{mmHg}$, $164 \pm 20 \text{mmHg}$: $98 \pm 12 \text{mmHg}$, 그리고 고혈압성 망막증은 각각 28명(56% : 1등급 46.0%, 2등급 10.0%, 3등급 0%, 4등급 0%)과 38명(76% : 1등급 42%, 2등급 22.0%, 3등급 12.0%, 4등급 0%)이었다. 좌심실비대 양성군에서 좌심실비대 음성군에 비해 심실성 부정맥 발생율이 높았고($p < 0.05$), 초기 혈압이 높았으며($p < 0.05$), 고혈압성 망막증이 심하였다($p < 0.05$). 좌심실비대 양성군에서 혈청 크레아티닌 치와 사구체 여과율에 있어서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($p > 0.05$).

결론 : 고혈압 환자에서 심실성 부정맥이 좌심실비대 음성군보다 좌심실비대 양성군에서 더 흔하게 발생하였다. 그러나 이러한 부정맥의 임상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.

채식자와 비채식자에서 혈청 지단백 및 항 산화능의 비교

서울 위생병원 내과

김 수길^{*}, 조 호, 오 용열, 권 한진, 김 현일, 임 민섭, 박 정식

목적 ; 동맥경화성 심장 질환의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인 고지혈증은 식이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. 대부분의 지단백은 식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알려졌으나, Lipoprotein(a) (이하Lp(a))는 식이에 의해 별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. 또한 항 산화제는 동맥경화증의 발생과 관련된 물질로 알려져 왔으며, 식이를 통한 항 산화제의 섭취와 심혈관 질환의 발생 감소와의 관련은 많은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. 이에 채식이 고지혈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Lp(a)를 포함한 각종 지단백과 항 산화제를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다.

방법 ; 서울 위생병원에서 1997년 5월부터 1998년 1월까지 실시한 신체검사 대상자 중 35세 이상의 남자 지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후 채식군 174명과 비채식군 154명을 선정하여 공복혈당, 혈청지질, 지단백 측정치를 상호 비교하였다. 또한 이들 중 채식자 174명과 비채식자 76명의 항 산화제의 측정치를 비교하였다. 또 각군에서 흡연자를 제외한 174명과 45명 상호간의 항 산화제의 측정치도 비교하였다.

결과 ; 채식자군은 비채식자군에 비하여 공복혈당, cholesterol, 중성지방, LDL-cholesterol, Lp(a) 치가 유의하게($p < 0.05$) 낮았다. 항 산화제의 측정치 상호 비교에서는 채식자군이 비채식자군에 비해 유의하게($p < 0.001$) 높았으며, 흡연자를 제외한 비교에서도 유의한($p < 0.001$) 차이를 보였다.

결론 ; 채식자군은 비채식자군에 비하여 공복혈당, cholesterol, 중성지방, LDL-cholesterol 및 Lp(a)치가 유의하게 낮았다. 항 산화제 측정치의 상호 비교에서는 채식자군이 비채식자군에 비하여 항 산화제 측정치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흡연자를 제외한 분석에서도 채식자군이 유의하게 높았다.